

2017년 상반기



해외출장 가이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출장자료

【 목 차 】

I. 국가 개황

1. 일반현황 -----	1
2. 주요역사 -----	1
3. 시장특성 -----	3

II. 아르헨티나 경제 및 교역 현황

1.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	4
2. 대외교역 현황 -----	7
3. 투자유치 동향 -----	11
4. 인증기관 -----	13

III. 한·아르헨티나 무역 및 투자현황

1. 수출입 동향 -----	16
2. 투자진출 현황 -----	20

IV. 체류 안내자료

1. 주요 연락처 -----	23
2. 체류 유의사항 -----	23
3. 주요 식당 -----	29
4. 관광명소 -----	30
참고1) 바이어 상담 유의사항 -----	34
참고2) 바이어 접촉 가이드 -----	39

V. 무역관 직원 연락처 ----- 42



I. 국가 개황

1. 일반 현황

- 국명 : 아르헨티나 (República Argentina)
- 국체 : 연방공화국
- 정부형태 : 대통령 중심제 (임기 4년, 재임 가능)
 - 현직 대통령 : Mr. Mauricio Macri ('15.12.10일 취임)
- 의회 : 상·하 양원제 (상원 72석, 하원 257석)
 - 상원 임기 6년, 하원 임기 4년으로 매 2년마다 교체
- 정당 : 승리를 위한 전선(Frente para la Victoria- FV), 정의당(Partido Justicialista-PJ/페론당), 급진당(Unión Cívica Radical-UCR), 공화제안당 (PRO), 평등공화국을 위한 연합 (Alianza de una Republica Igualitaria-ARI) 등
- 인구 : 4,302만 명 (남 49%, 여 51%)
 - * 한국 4,888만 명, 브라질 2,078만 명, 칠레 1,709만 명
- 병력 : 103,500명 (육군 4만 명, 해군 2만 명, 공군 13,500명, 보안군 3만 명)
- 인종 : 백인 97% (유럽계 백인 97%), 기타 3% (인디오 0.5%)
- 수도 : 부에노스아이레스 (인구 289만 명, 수도권 1,497만 명)
 - 수도 면적 202km² (서울의 1/3)
 - 23개 주정부 및 1개 연방수도로 구성 (각 주는 독자적인 행정권 및 사법권 소유)
- 면적 : 279만km² (세계 8위)
 - 본토 기준 한반도(22.2만km²)의 약 12.5배, 남한(9.9만km²)의 28배
 - 해안선 길이 4.725km
- 기후 : 북부의 아열대 기후에서 남부의 한대 기후까지 분포
 - 4계절이 있고, 한국과 반대(한국이 겨울일 때 아르헨티나는 여름)
- 언어 : 스페인어 (문맹률 2%)
- 종교 : 로마 카톨릭교 (92%), 개신교 (2%), 유대교 (2%), 기타 (4%)
- 화폐 : 페소(Peso)
- 시차 : 서울과 12시간 차이 (-12시간)

2. 주요 역사

- 1580년 스페인 식민통치 시작
- 1810. 5.25 5월 혁명 (독립운동 시작)



- 1816. 7. 9 스페인으로부터 독립(독립 운동지도자 산마르틴(San Martin)장군)
- 1946. 6. 4 페론 (Juan Domingo Peron) 대통령 취임
- 1955. 9.16 페론 대통령, 쿠데타로 실각·망명
- **1982. 4. 2 포클랜드(말비나스) 전쟁(6.14 종전)**
- 1983.12.10 알폰신(Raul Alfonsin) 대통령(UCR당) 민간정부 출범
- 1989. 7. 8 메넴(Menem)대통령 집권 * 초인플레이(2,200%) 영향
- 1991. 4. 1 태환정책(미화와 폐소화를 1:1로 교환) 실시
- 1995. 7. 8 메넴(Carlos Saul Menem) 대통령 4년 임기 재취임
- 1999.12.10 야당연합(Alianza) 데라루아(De la Rua) 정부 출범
- 2001.12. 1 예금인출 제한조치 전격 발동
- 2001.12.20 민중시위로 데라루아(De la Rua) 대통령 중도 사퇴
- 2001.12.23 의회, 사아(Rodriguez Saa) 임시 대통령 선출
- **2001.12.24 아르헨 정부, 민간 대외채무 제 1 디폴트 선언**
- 2001.12.30 집권당내 정책 이견으로 사아 대통령 사임(7일 천하)
- 2001.12.31 의회, 두알데(Duhalde) 상원의원 대통령 선출
- **2002. 1. 7 태환제 폐지(법안 상하양원 통과), 이중환율제 실시 (공식-비공식 환율)**
- 2002. 2.11 단일 변동환율제 실시(이중환율 중 공정한 환율 폐지)
- 2002.11.14 對국제금융기관(세계은행) 채무불이행(제2 디폴트 사태)
- 2002.12. 2 요구불 예금 현금인출 제한조치(Corralito) 해제
- 2003. 1.16 초단기 IMF 협상 타결(의향서 교환) * 3.24 이사회 통과
- 2003. 5.25 페론당 키르츠네르 대통령 취임
- 2005. 3. 1 디폴트 국제 교환거래 성공으로 탈 디폴트 공식 선언
- 2006. 1. 3 아르헨티나 IMF 채무 전액 조기 상환 (US\$ 95억 3000만)
- 2007.12.18 페론당 크리스티나 대통령 취임
- 2008. 5.15 페론당 대통령 남편 키르츠네르 페론당 대표 취임
- 2009. 6.28 총선 실시, 페론당 실질적 패배(하원의석 17석 감소)
- 2011.10.23 크리스티나 대통령 대선 승리로 연임
- 2012. 4.16 아르헨티나 최대 석유회사 YPF(스페인계)에 대한 국유화 선언
- 2013. 10.27 총선 실시, 집권당 패배
- 2015.10.25 1차 대선투표로 Fpv의 Scioli(중도좌파)와 Cambiemos의 Macri (중도우파)가 2차 대선 투표 후보자로 결정
- 2015.11.22 2차 대선투표, Macri 차기대통령이 51.4% 득표율로 여당의 Scioli 후보와 2.8%라는 근소한 표차이로 당선
- 2015.12.10 Macri 대통령 취임.
- 2015.12.16 외환규제 철폐, 폐소 40% 평가절하
- 2015.12.23 사전수입승인허가제(DJAI) 철폐/ 종합수입모니터링 제도 도입 (SIMI)



3. 시장특성

□ 중남미 3위 경제대국, 스페인어 권 남미경제의 중심축

- 중남미에서 GDP·교역 면에서 멕시코·브라질에 이어 3위
 - 인구 4,302만 명으로 비교적 큰 자체시장 형성
- 2015년 1인당 GDP(PPP 구매력 기준)는 22,707달러로 중남미 최고 수준

□ 풍부한 광물·에너지·식량자원 보유국가

- 풍부한 광물자원 보유국가인 아르헨티나는 리튬 매장량이 세계 4위, 셰일가스가 세계 3위임
- 아르헨티나 수출의 53%가 농축산물 및 광산물
 - 해바라기 기름(생산·수출 1위), 대두유(수출 1위, 생산 3위), 꿀(수출 1위, 생산 2위), 옥수수(수출 2위), 대두(생산 3위), 소고기(생산 3위), 포도주(생산 6위) 등

□ 유럽계 다국적 기업 지배시장

- 아르헨티나 100대 기업 전체 매출액 중 외국계가 전체의 71.3% 차지
 - 2014년 까지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인수합병이 크게 증가하고 있었음. 2015년 2월부터 아르헨티나는 중국과 협정하여 제 4-5 회 핵발전소를 설립함. 이 때 투자금의 85%는 중국이 부담함.
- 외국계 중에서는 스페인이 압도적
 - 100대기업 중 석유, 전화, 가스, 항공부문의 4개 기업만으로 13.2% 차지

□ 경직적인 노동시장

- 전통적인 강성노조 및 노동자 중심의 노동법으로 아르헨티나 투자 최대 걸림돌로 작용
 - 아르헨티나 경제 파탄의 주요 원인을 포퓰리즘, 강성노조, 부정부패로 꼽을 만큼 노동권이 강한나라
- 경직적인 노동법으로 일단 고용하면 해고는 어려우며, 노조 분쟁 발생시, 법원은 대부분 근로자의 입장에서 법규를 해석하여 고용주의 해고비용이 매우 높은 상황
- 아르헨티나 최저임금은 남미에서 가장 높으며 이는 생산경쟁력을 떨어뜨리데 일조함

□ 내수지향적 수입대체공업 정책

- 아르헨티나 제조업은 중간재 산업인 중화학 공업 정책 없이 수입대체전략에 입각한 경공업 위주로 형성
 - 전 정부의 수입규제 정책으로 생산에 필요한 생산재(원자재·자본재)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생산비용 상승압박이 가중됨



- 높은 생산비용의 비효율적인 구조로 수출 경쟁력은 떨어져 내수시장만을 타겟으로 생산중인데,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로 산업생산은 3년 가까이 마이너스성장을 기록
- 아르헨티나 수입 중 자본재 및 그 부품 중간재 비중은 71%

II. 아르헨티나 경제 및 교역 현황

1.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대내경제 지표

지표	단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GDP	US\$억	5,846	6,154	5,704	6,322	5,457	6,438	6,648
1인당 GDP (PPP)	US\$	20,434	21,751	21,307	21,795	21,705	22,114	23,220
경제성장률	%	-1.1	2.3	-2.6	2.4	-2.3	2.7	3.6
물가상승률	%	26.8	26.6	38.5	40.0	42.7	21.1	10.7
실업률	%	7.2	7.1	7.3	7.6	8.5	8.9	8.6
재정수지/GDP	%	-2.4	-3.2	-3.0	-4.8	-5.1	-4.2	-3.8

자료원 : EIU

주 : *은 전망치

◦ 아르헨티나 경제, 모멘텀이 약한 경기회복 전망

- 2016년 아르헨티나 경제는 마크리 정부의 경제 정상화를 위한 긴축정책들로 과도 기적인 침체기를 겪음
- 경제 개혁정책 성과가 가시화될 2017년부터는 반등하여 미약하나마 성장세를 회복 하고, 2018년부터는 견고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기관별 아르헨티나 경제 성장 전망

기관	2017	2018
정부	3.0	3.2
IMF	2.2	2.3
World bank	3.2	2.2
Moodi's	3	3.5
OECD	2.9	3.15
CEPAL	2.3	-

- 최대 교역 파트너인 브라질과 중국의 경제 성장세 회복전망, 아르헨티나 내수회복 및 수출회복, 공공투자 확대와 외국인 투자의 본격적인 유입 등이 아르헨티나 경제



의 선순환을 가능하게 할 요인으로 작용

-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고질적 인플레이션, 재정 적자,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허대외정책 및 미국 금리인상 등의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은 아르헨티나 경제의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우려상존

◦ 2017년 인플레이션, 20~25%로 예상

- 마크리 신정부는 물가안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두고 시장 자율화, 무역규제 철폐, 외국인 투자 및 수출 증대로 임기내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을 자신함
- 그러나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공공부문 보조금 삭감과 환율 통제 해제로 인한 큰 폭의 페소화 절하로 2016년 물가상승률은 40%를 상회함
 - * 마크리 대통령재정적자를 축소하기 2002년 경제위기 이후 요금이 동결되었던 가스, 수도, 전기 등 에너지부분과 대중교통에 대한 보조금을 감축하여, 공공요금 이 약 300~600%이상 급등함
 - * 2015년 12월 17일, 신정부는 환율 통제를 해제하여 그동안 고평가되어온 페소의 급격한 평가절하가 이루어짐. 달러 환율은 9.84에서 13.95로 40% 이상 절하
- 정부의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긴축적 조치로 단기간 물가상승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다행히 2017년 들어서면서 인플레이션은 하강 곡선을 그리기 시작함
-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의 2017년 인플레이션 목표를 17%로 잡았지만, 경제 침체 장기화로 대내외 경제 연구소들의 정부전망을 상회하는 20~25%로 예상
- 2017년 4월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를 24.75%에서 26.25%로 인상
- 추가 공공요금, 휘발유, 민영 의료보험 등의 인상 예고와 임금인상이 물가 상승 압박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2016년 2분기 9.2%로 정점을 찍은 후 하강국면에 진입

- 아르헨티나 내수 침체와 신정부의 무역규제 철폐로 인한 수입증가로 현지 제조업 폐업이 늘어나면서 실직자가 속출함
- 정부의 공공부문 투자 확대,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지원, 고용 양성화 정책 등의 정부차원의 고용 장려 정책으로 실업률 하락이 기대됨
- 또한 아르헨티나 에너지 부분의 민간 및 외국인 투자 수요 증가로, 관련 업종 고용 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17년 재정적자 목표, 4.2%

- 신정부의 재정적자 감축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고, 특히 지하자금 양성화정책 성공이 재정적자 감소에 기여함
 - * 2015년 재정적자 GDP의 5.2%에서 신정부 출범 후인, 2016년 4.6%로 감축



- * 지하자금 양성화 정책(2016.8~2017.3.31)으로 은닉재산 1천억 달러 이상 신고 되었으며 1천150억 폐소 이상 세수를 확보하여 재정적자 감소에 기여함
- 2017년 재정적자 목표는 4.2%로 설정하고, 2019년까지 매년 1%씩 점진적 감축으로 균형재정 달성 할 계획

대외경제 지표

지표	단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수출실적	US\$ 백만	79,976	75,975	68,409	56,762	58,742	63,860	68,028
수입실적		65,088	71,293	62,429	57,176	57,260	55,814	59,129
경상수지		-1,440	-12,143	-8,031	-15,944	-13,950	-8,028	-7,470
경상수지/GDP	%	-0.2	-0.8	-1.0	-2.5	-2.6	-1.2	-1.1
FDI 순유입	US\$ 백만	14,269	10,204	4,495	8,187	9,377	-	-
외환보유고		39,920	28,143	29,017	31,728	32,370	51,924	54,295
외채잔액		133,042	146,569	144,972	159,694	190,227	201,374	215,326
외채잔액/GDP	%	23	24	25	25	35	31	32
환율(1USD)	ARS	4.54	5.46	8.08	13.08	15.00	16.48	18.72

자료원 : EIU

주 : *은 전망치

◦ 지하자금 양성정책 및 곡물 수출로 외환보유액 증가

- 아르헨티나 외환보유액은 신정부 출범 후, 외환규제 완화 및 기술적 디폴트를 해결하면서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
 - * 기술적 디폴트(2014년 7월~2016년 4월) : 2001년 1천억 달러 디폴트 선언 에 따른 채무조정(2005년/2010년-원금의 75%탕감)을 거부한 미국계 벌채펀드의 소송으로, 아르헨티나는 기술적 디폴트 상태에 빠짐. 마크리 정부 출범 후, 적극적인 채무상환 협상으로 합의 도출(95억달러 상환). 15년 만에 국제 금융시장에 복귀.
- 최근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 미신고 재산 양성화의 성공적인 진행, 수출 대금 환전 증가 등의 복합적인 이유로 2017년 외환보유액은 6만에 500억불 회복

◦ 아르헨티나 외채 2,100억불 육박

- 마크리 신정부의 수출 규제 완화, 수입을 위한 환전규제 완화, 환전자율화, 해외 본국 과실금 송금 자율화, 디폴트 채무상환 등으로 2016년 아르헨티나 경상수지 140억불 적자
- 2016년 외채는 약 1900억불에 육박 하였으며 이중 1,200억불이 공공분야 부채임
- 중앙·주정부 및 민간부분의 채권 발행으로 2017년 2월까지 외채 잔액은 약 2,100억불에 육박
 - * 크리스티나 전정권의 대외채무와 비교, 약 405억불 증가



- 아르헨티나 재무부는 올해 총 400억 규모의 달러의 국채를 신규 발행하여 재정적자를 충당 할 계획임
- *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중앙은행 자산을 이용한 크리스티나 전정부와 차별화를 둠

2. 대외교역 현황

□ 교역동향

- 아르헨티나 수출입은 무역수지 흑자와 외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 수입규제 정책으로 2012년부터 감소세를 유지
- 2015년말 정권교체 이후 신정부의 개혁정책으로 수출입 무역환경이 개선되었으나 대내외 여건 악화로 교역량은 오히려 감소함
 - 대외적으로는 세계경기 회복 둔화에 따른 원자재 수요감소, 최대 교역국인 브라질 및 중국 경제성장 둔화인한 교역 감소, 대내적으로는 신정부의 수입개방 정책으로 인한 경쟁력 상실, 아르헨티나 높은 생산비용과 설비시설 투자 미비로 수출 경쟁력 상실 등에 기인함
 - 2016년 수출은 577백만불로 전년대비 2% 소폭 상승하였으나, 이는 2012년부터 연평균 9%감소해 온 것에 대비하면 기저효과에 불과함
 - 신정부는 출범 후, 2015년 12월 15일 농산물에 부과되던 수출세를 폐지(감소), 환율 규제를 폐지 등의 수출 환경 개선으로 수출 물량은 늘어났지만, 세계 원자재 가격 하락 및 브라질·중국 경제성장 둔화로 수출금액 증가는 예상치를 하회함
 - * 2002년 디폴트 이후 재정확보를 위해 실시되었던 수출세를 2015년 12월 15일 폐지(감소)하였고, 최대 수출품목인 대두는 기존 35%에서 30%로 인하하고 나머지 작물의 수출세는 즉각 폐지함
 - * 2015년 12월 17일, 신정부는 환율 통제를 해제하여 그동안 고평가되어온 페소의 급격한 평가절하가 이루어짐. 달러 환율은 9.84에서 13.95로 40% 이상 절하됨
 - 2016년 수입은 신정부의 수입규제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556백만불로 전년대비 -5% 감소
 - * 세계 저유가로 인한 수입단가 하락과 최대 교역국인 브라질의 해알화 평가절하로 늘어난 수입물량에 비해 금액은 오히려 감소
 - * 2015년 12월 22일, 신정부는 외화 유출을 막고 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명분으로 2012년부터 운영돼 오던 수입규제 정책인 사전수입신고제(DJAI)를 전격 폐지하고, 수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입통합모니터링(SIMI)를 운영
 - * SIMI 시스템하에 현지에서 제조되는 민감한 품목을 대상으로 HS코드 1,600에 대



해서는 수입허가제(LNA)를 실시함

아르헨티나 최근 교역동향

(단위 : U\$백만,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수출 (증감)	79,982 -5	75,963 -5	68,407 -10	56,788 -17	57,733 2
수입 (증감)	67,974 -8	74,442 10	65,230 -12	59,756 -8	55,610 -5
수지 (증감)	1,200 20	1,521 -87	3,178 109	-2,968 -193	2,123 -172

자료원 : 아르헨티나 국립 통계청 (INDEC)

□ 수출 동향

- 아르헨티나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회원국인 브라질, 중국, 미국 순으로 상위 3개국이 전체 수출의 32%차지

아르헨티나 10대 수출 대상국

(단위: U\$ 백만, %)

연번	국가	2015		2016		
		금액	증감	금액	증감	비중
	계	56,787	-13	57,737	2	100
1	브라질	10,756	-21	9,238	-10	16
2	중국	5,378	12	4,619	-10	8
3	미국	3,585	-13	4,619	36	8
4	베트남	1,793	31	2,309	36	4
5	칠레	2,390	-13	2,309	2	4
6	인도	2,390	17	2,309	2	4
7	이집트	1,195	14	1,732	53	3
8	스페인	1,195	-13	1,732	53	3
9	독일	1,195	-13	1,155	2	2
10	인도	1,195	-4	1,155	2	2
21	한국	583	20	860	48	1

자료원 : 아르헨티나 국립통계청(INDEC)

- 아르헨티나 주요 수출 품목은 1차산품위주이며, 옥수수과 대두 및 대두 조제품이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
 - 유일한 공산품인 5톤 이하의 자동차가 전체 수출 품목의 5위를 차지하며, 주요수출 대상국은 브라질임.
 - * 아르헨티나와 같이 자동차를 조립생산하고 있는 브라질의 헤알화 평가 절하로 브라질산 자동차 수입이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임
 - 수출 품목 제 8위에 위치한 바이오디젤은, 유럽의 아르헨티나산 바이오디젤 반덤핑 부과 취소로 앞으로 괄목할만한 수출이 예상됨
 - * 90%이상 유럽으로 수출되는 바이오디젤은 2013년부터 유럽연합(EU)의 아르헨티나산 바이오디젤에 대해 반덤핑 관세부과(22~25.8%)하여 경쟁력을 상실 하였으나, 2016년 10월 취소되어, 향후 수출환경에 큰 변화가 기대됨

아르헨티나 10대 수출 품목

(단위: U\$ 백만, %)

연번	HS코드	품목명	2016		
			금액	증감	비중
		계	57,737	2	100
1	230400	대두유 추출 오일 케이크와 유박	9,977	3	17
2	100590	옥수수	4,131	35	7
3	150710	조유(粗油)	3,971	8	7
4	120190	대두	3,211	-25	6
5	870421	자동차(총중량이 5톤 이하) 조유	2,296	-9	4
6	710812	가공하지 않은 금	2,046	-10	4
7	100199	밀, 호밀	1,841	81	3
8	382600	바이오 디젤	1,240	145	2
9	306170	갑각류-새우	1,003	31	2
10	270900	석유 및 역청유	740	10	1

자료원 : 아르헨티나 국립통계청(INDEC)

□ 수입 동향

- 아르헨티나의 주요 수입대상국은 수출교역국과 마찬가지로 브라질, 중국, 미국 순으로 상위 3개국이 전체 수입의 55%를 점유함
- NAFTA를 활용한 미국 진출을 목적으로 멕시코에 생산기지를 둔 다국적기업들이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남미를 대체시장으로 다변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향후 대 멕시코 수입이 크게 늘어날 전망



아르헨티나 10대 수입 대상국

(단위: U\$ 백만, %)

연번	국가	2015		2016		
		금액	증감	금액	증감	비중
	계	59,757	-8	55,610	-7	100
1	브라질	13,147	-8	13,346	2	24
2	중국	11,951	15	10,566	-12	19
3	미국	7,768	-8	7,229	-7	13
4	독일	2,988	-8	2,781	-7	5
5	멕시코	1,793	-8	1,668	-7	3
6	프랑스	1,195	-8	1,668	40	3
7	이탈리아	1,195	-39	1,668	40	3
8	태국	598	-26	1,112	86	2
9	일본	1,195	-8	1,112	-7	2
10	스페인	1,195	11	1,112	-7	2
11	한국	1,071	18	885	-17	2

자료원 : 아르헨티나 국립통계청(INDEC)

- 아르헨티나의 주요 수입 품목은 자동차, 석유, 통신기기부분품, 항공기 등의 순위를 보임
- 괄목할만한 점은, 자동차 수입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며, 이는 신정부의 고급제품에 대한 내국세 인하 및 지하자금 양성화 정책 성공으로 자동차 투자 증가에서 기인함
 - * (내국세 인하) 2015년 12월부터 고급자동차에 부과되던 내국세(30~50%)가 전격 인하(10~20%)되어 수입자동차 가격 경쟁력이 높아짐
 - * (지하자금 양성화 정책) 2016년부터 자금 출처를 조사하지 않는 조건과 세제혜택으로 은닉재산을 신고재산으로 바꾸는 지하자금 양성화 정책으로 고급 승용차에 대한 투자가 늘어남

아르헨티나 10대 수입 품목

(단위 : U\$백만, %)

연번	품목코드 (HS 코드 6자리)	품목	2016		
			금액	증감	비중
		계	55,610	-7	100
1	870323	자동차(1,500cc~3,000cc)	2,941	25	5
2	271019	석유와 역청유	1,704	-18	3
3	870322	자동차(1,000cc~1,500cc)	1,228	53	2



4	851770	통신기기부분품	1,224	-31	2
5	880240	항공기	1,100	105	2
6	271111	액화천연가스	997	-54	2
7	300490	의약품	881	-1	2
8	271121	천연가스	743	-46	1
9	851762	전화기(휴대전화 포함)	642	-10	1
10	300210	항혈청, 면역제품	630	-18	1

자료원 : 아르헨티나 국립 통계청(INDEC)

3. 투자유치 동향

□ 투자진출 환경

- 거대한 공동시장 : 2005년 Mercosur 공동시장(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출범, 2012년 베네수엘라 정회원국으로 추가 가입
- 지속적인 경제성장 : 2003년 이후 연평균 8% 이상의 경제성장 지속, 2009년, 2012년 하락세, 2013년 회복세를 거쳐 2015년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내외국기업 무차별 대우
- 외국인 투자진출 업종 완전 개방
- 풍부한 자원과 인력 보유
- 페론주의에 입각한 친 노동자, 친 노조 노동법과 외환 거래 경직성으로 현지 법인 설립 투자에 불리한 요건
- 아르헨티나 생산부 산하 신생기관인 투자무역진흥청에 따르면 새 정부 취임 이후 2016.5월말까지 40개 외국기업이 대 아르헨티나 투자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예상금액은 총 15,451백만불로 집계됨
 - 주요 투자분야는 광물, 에너지, 자동차, 통신, 등임
- 폐소화 환율인상, 곡물수출세 폐지 (감축), 원자재 수입규제 완화, 기업과실 송금 가능성 확대, 디폴트 해제 등 친기업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면적인 개혁정책을 도입하고 있음
 - 그러나 높은 인플레이션, 노조분쟁, 폐소화 절상, 치안문제 등과 같은 외국인 투자에 저해되는 현상들이 외국투자가자들에게 우려요인이 되고 있음

□ 투자유치 동향

- 남미 6위의 투자유치 실적



- 브라질,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에 이어 2013년 113억, 2014년에 66억불 이상 투자유치
- 천연자원 개발 분야에 집중
 - 광업, 기간산업, 제조업 순으로 외국기업 진출
- M&A형 투자진출 증가
 - 정치 불안으로 Greenfield 투자 증가율 정체
- 마크리 신정부 출범후, 前 정부와 달리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 행보를 보임
 - 송금규제(배당금, 과실금 수입대금)를 철폐, 기술적 디폴트 해결, 중앙은행 총재 즉각 교체, 수입규제 완화 등의 개혁정책으로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투자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21%) 환급 프로모션을 통해 투자 촉진 도모
 - 정부는 '16년 9월 12일~15일 4일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비즈니스 및 투자 포럼'을 개최하여 1,500개의 글로벌 투자자, CEO, 각국정부관계자가 對 아르헨티나 투자 열기가 뜨거웠음
 - 신정부 출범 후, 약 200억불을 상회하는 규모의 외국인 직접투자 계획이 발표 되었고, 아직까지 15%정도만 유입됨
 - * 투자 분야는 운송 (100 %), 서비스 (77 %), 통신 (75 %) 및 소매 (67 %) 등
 - 신정부의 구조적인 개혁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인플레이, 강성노조, 치안, 낙후된 인프라, 숙련된 노동자 부족, 조세압력 등이 투자자들의 불안 요인으로 지적됨

□ 국별 투자진출 현황

- 아르헨티나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현황('15년 총 116백억 불 유치)
 - 아르헨티나 FDI 잔액은 938억불로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를 이어 4위
 - 주요 투자국은 미국, 스페인, 프랑스
 - 아르헨티나 FDI는 前 정부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수입·외환규제로 급격히 감소.
 - 前정부의 에너지 분야 규제로 FDI가 크게 줄어든 반면, 4G 보급확충으로 통신분야 투자가 늘어남
 - * 에너지 부분에서 스페인 렉솔사가 인수하였던 아르헨티나 YPF사를 아르헨티나 정부가 강제 국유화 하여, 투자 매력이 크게 떨어짐.
 - FDI 주요투자 기업은 Peugeot, General Motors, Telefonica, Wal-Mart 및 Sony와 같음

아르헨티나 FDI 현황

FDI	단위	2013	2014	2015
FDI 유입	U\$백만	9,822	5,065	11,655
FDI 잔액	U\$백만	93,691	82,216	93,871



그린필드 투자수	수	99	59	44
FDI 유입/GFCF	%	9.3	5.4	11.4
FDI 잔액/GDP	%	15.1	15.1	16.0

자료원 : UNCTAD, 2015

국가 및 산업별 FDI

투자국	비중(2014/%)	투자 분야	비중(2014/%)
미국	24.0	오일	22.1
스페인	17.0	화학 및 플라스틱 산업	16.2
네델란드	10.0	파이낸싱	12.5
브라질	6.0	통신	10.5
칠레	5.9	광산	0.9
스위스	4.0		
독일	4.0		
우루과이	4.0		
룩셈부르크	3.0		

자료원 : 아르헨티나중앙은행(BCRA), 2016

4. 인증기관

□ 표준인증협회(IRAM)

- 전기·전자, 화학, 가스관련 제품, 완구, 기계·금속제품 등에 대하여 IRAM표준에 부합할 경우 IRAM 인증마크를 부여
 - IRAM 인증은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칠레, 페루, 볼리비아 등 중남미 국가에 효력을 발휘

◦ IRAM 인증 분야

구분	분야	내용	비고
소비재 제품인증	화학제품	PVC 액세서리, 볼펜, 소화기 충전물질, 반사지, 브레이크 패드 및 용액, PE/PRFV 튜브 안전유리 등 안정성 인증	강제사항
	완구	완구 안정성 인증	“
	농임업 제품	목재, 복사지 등 종이제품 등	“
농식품 IRAM-Fundacion ArgenINTA (공동인증)	농식품 인증	햄버거, 달걀, 치즈, 닭고기, 차	선택사항
	BPM	제조우수사례 인증	“
	BPA	농업우수사례 인증	“
	PI	친환경적 농업에 대한 인증	“
	HACCP	식품 분야에서 위험과 관리의 임계점 관리 제도에 대한 인증	“



	BPM S.A.	식품부문제조우수사례 인증	“
	P.O.	유기농 제품인증	“
전기·전자		KTL을 통해 신청 가능 (전기·전자 제품 인증방법 참조)	“
기계·금속		견인장치, 기중기 등 안전, IRAM-INTI 공동 인증	“

□ 산업기술청(INTI)

- 2001년 설립된 정부기관(설립근거: Consejo Directivo No. 32/2001)으로 법에 따라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거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신청한 제품에 대해 안전·품질 인증
- INTI 인증분야

분 야	업무내용
완구	완구 안전성에 대한 인증 인증기준 및 근거: 결정문(Resolución) 163/2005
용기 (envase)	뚜껑 등의 재질이 위험한지 등 용기에 대한 인증기준 및 근거: 결정문 730/1998
시멘트	건축용 시멘트에 대한 인증 인증기준 및 근거: 결정문 130/1992, 240/1992
전기제품	저압에서 사용되는 전기제품에 대한 인증 인증기준 및 근거: 결정문 92/1998
신발	신발 각 재료 성분, 제조업체, 상표, 모델에 대한 라벨링 인증기준 및 근거: 결정문 508/1999
포장지	포장용 종이에 대한 라벨링 인증기준 및 근거: 결정문 653/1999
가스장비	천연가스, LPG 등 모든 유형의 가스기기 및 액세서리에 대한 인증 인증기준 및 근거: 아르헨티나 가스공사(Enargas) 표준
개인보호장비	개인보호장비의 장비, 수단 및 부품에 대한 인증 인증기준 및 근거: 결정문 896/1999
자동차부품	안전관련 자동차부품 및 요소에 대한 형식승인 인증 인증기준 및 근거: 결정문 91/2001
수입자동차	수입자동차 기술서류에 대한 검사 검사기준 및 근거: 결정문 64/2001
우박방지용 그물	농작물 보호를 위한 설치조건 및 품질 등에 대한 인증 인증기준 및 근거: 법률 25174/99, 시행령 1552/2001
식품	모든 식품의 품질 및 가공단계에 대한 인증 강제 인증은 아니며 자발적으로 인증 받음.
에너지 라벨링	전기제품이 정해진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인증 인증기준 및 근거: 결정문 319/1999
자전거	자전거 판매를 위한 안전 인증 유아용 자전거 안전기준 규정 및 심사 인증기준 및 근거: 결정문 220/2003, 91/2004
라텍스 페인트	라텍스(latex) 페인트의 납 함유량 검사 및 인증 인증기준 및 근거: 결정문 1088/2004
철강	콘크리트 철근 또는 건축용 철 구조물 사용 시 최저 안전기준검사 및 인증 인증기준 및 근거: 결정문 404/1999
라이터	라이터 안전성 검사 및 인증



	인증기준및 근거: 결정문 77/2004
자전거용튜브, 타이어	튜브 및 타이어에 대한 최저 안전기준 검사 및 인증 인증기준 및 근거: 결정문 153/2005
기계·장비	플라스틱·고무 사출기계에 대한 인증 인증기준 및 근거: 결정문 97/2006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및 부품에 대한 안전 인증 인증기준 및 근거: 결정문 897/1999
기타 품목	자발적으로 인증 신청할 수 있음.

□ 식약청(ANMAT:Administración Nacional de Medicamentos, Alimentos y Tecnología Medical)

- 아르헨티나에서 의료기기·의약품·식품을 수입하려면 아르헨티나 식약청 (ANMAT) 의 인증을 받아 등록번호를 교부받아야 함
- 법령 17/06 호에 의료기기·의약품·식품의 최초 수입 시 ANMAT에 카탈로그, 원산지 증명서, 품질증명서, 생산절차설명서 등을 제출하면 심사 후 상품 등록 고유번호가 발급됨.
- 인증 소요기간은 근무일 기준 180일(6개월)이 소요되며, 이후 같은 제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상품 등록 고유번호만 제출



III. 한·아르헨티나 무역 및 투자현황

□ 2016년 한-아 교역액 총액 16억불로 전년동기대비 7% 소폭 상승

- 2016년 대 아르헨티나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4%감소한 7.9억불, 수입은 19% 증가한 8.3억불로 무역수지 3,600만불 적자기록
- 한-아 교역은 2012년 역대 최대 규모인 24억불을 달성한 뒤 아르헨티나 정부의 폐쇄적 보호무역주의 기치로 점차적으로 감소하였고, 2016년 정권교체 후에도 적자기조 유지
- 아르헨티나 수입규제와 자국 산업보호 정책으로 최종재보다 아르헨티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중간재(자본재), 혹은 현지 생산이 불가능한 기술집약적 제품 위주로 수출
- 주요 수입 품목은 농산물 및 광물 등의 1차 상품에 국한됨

<한-아 교역동향>

(단위, 백만 U\$,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총액	2,401	2,270	1,255	1,746	1,627
(증감)	(13)	(-5)	(-45)	(39)	(-7)
수출	973	1,075	754	1,047	795
(증감)	(-10)	(105)	(-29)	(38)	(-24)
수입	1,428	1,195	501	699	832
(증감)	(36)	(-16)	(-58)	(39)	(19)
수지	-455	-120	253	348	-36
(증감)	(-1479)	(-74)	(-331)	(38)	(-110)

자료원: KITA 무역통계

- 아르헨티나 경기침체 및 산업생산둔화로 원자재·자본재·중간재 수요가 줄어 2016년 대아르헨티나 수출은 전반적으로 감소함
- 주력 수출품인 휴대폰 부분품 수출이 1.3억불로 전년대비 56%이상의 감소를 보여 전반적인 수출 감소를 견인함. 이는 중국 하웨이 스마트폰 아르헨티나 조립생산시작(2015년) 및 현지에 생산된 가전제품의 높은 가격으로 현지 수요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기인함
- 반면, 마크리 신정부의 자동차 내국세 인하와 수입규제 완화로 자동차 수출 1.1억불로 전년대비 60% 증가함
- * 이는 아르헨티나 전정부의 수입규제가 절정에 달했던 2014년(2400만불), 2015년(7000만불) 수출이 낮았던 데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 덕이며, 자동차 수출이



2.6억불에 달했던 2012년과 비교하면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임

<대 아르헨티나 주요 수출품목>

(단위: 백만 U\$, %)

연번	품목 코드 (MTI 4단위)	품목	2015		2016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총계			1,046	38.9	795	-24
1	8128	무선통신기기부품	317	85.7	138	-56.3
2	7411	승용차	69	196.1	111	60.4
3	8211	칼라TV	53	42.7	71	35.7
4	7420	자동차부품	27	10.6	49	76.5
5	2140	합성수지	60	-14.0	39	-34.3
6	8361	평판디스플레이	58	35.9	36	-36.6
7	6229	기타동제품	15	18.4	27	78.4
8	7412	화물자동차	23	12.2	24	4.6
9	2130	석유화학합성원료	40	0.6	21	-46.4
10	7251	건설중장비	20	50.7	13	-34.0

자료원: KITA 무역통계

- 대아르헨티나 수입은 아르헨티나 전정부의 무역규제가 절정에 달했던 2014년 최저치인 5억불을 기록 후, 다시 회복중에 있으며 신정부의 무역규제 완화정책으로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15년 12월 출범한 마크리 신정부의 수출확대를 위한 수출세 폐지(감축), 환율 통제 철폐를 통한 수출 경쟁력 상승으로 2016년 대아르헨티나 수입은 전년대비 약 20%증가한 8.3억불 기록
- 박류 1.5억불로 전년대비 약 60%감소하였지만, 사료 3.6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445% 폭발적인 증가와 식물성유지 1.1억불로 20%증가가 전체 수입을 견인함

<대 아르헨티나 주요 수입품목 >

(단위: 백만 U\$, %)

연번	품목코드 (MTI 4단위)	품목명	2015		2016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총계			699	39.4	833	19.1
1	0136	사료	66	-51.1	362	445.8
2	0135	박류	361	1,006.1	153	-57.5
3	0131	식물성유지	97	-39.6	115	19.0



4	1112	은	55	29.1	56	1.2
5	0419	기타어류	43	58.8	34	-22.6
6	0111	곡류	13	1,565.9	19	45.4
7	1160	아연광	4	-79.3	17	290.2
8	0115	채유종실	5	26.5	16	206.7
9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4	-20.3	14	204.5
10	0421	새우	10	7.1	11	8.3

자료원: KITA 무역협회

□ 수입규제

○ 반덤핑 규제

- 2016년 12월 31 기준 아르헨티나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2건으로, 반덤핑 1건 규제 중이며 1건은 최종판정 적용 유보 상태임
- 품목별로는 화학제품 1건, 전기전자 1건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	3907.60.00	반덤핑	'12.04.23 재조사: '16.0 3.29	'13.10.25	화학	-관세율: 8% -규제기간: '13.10.24일부터 5년간 반덤핑규제 적용 -'16.3.29 반덤핑 관세율 재 조사 실시
삼상 유입 변압기 (단락용량 10,000KVA 초과 600,000KVA 이하의 것)	8504.23.00	반덤핑	'13.01.02	'14.7.2 (적용 유보)	전기전자	-'13.5.23 예비판정 : 한국:178%, 중국:139% -'14.7.2일 최종 덤핑마진 조사결과 발표 : 한 국:52%, 중국:54% *최종판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수요를 이유로 '17.7.17일까지 적용을 유 보함

자료원 : 무역위원회(CNCE)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반덤핑 관세율 적정여부 재조사 실시

- 2012년 4월 23일 반덤핑 조사가 시작된 PET에 대해 아르헨티나 경제재정부는 2013년 10월 24일 행정령 691/2013호를 통해 한국, 중국, 대만, 인도 및 태국 등 5개 국가에 FOB 수출 가격의 8%에 해당하는 반덤핑관세가 향후 5년간 부과될 것임을 공표하였고, 무혐의 판정이 난 한국업체 KP CHEMICAL CORP.社 및 LOTTE



INTERNATIONAL CO. LTD.社는 이 조치에서 제외됨

- 2015년 5월 12일 제소자 DAK AMERICAS ARGENTINA S.A.사의 반덤핑 관세율 재심 요청으로 2016년 3월 29일 아르헨티나 경제재정부는 상기 5개국에 부여되는 반덤핑 관세율 제소사 착수중이며, 기존 무혐의 판정을 받은 한국의 2개사는 제조사에서 제외됨
- PET에 대한 반덤핑 관세 인상이 유력해지고 있으며, 제소사 결과는 최대 18개월까지 걸릴 예정임

◦ (삼상 유입변압기) 반덤핑 최종판정 적용 유보

- 아르헨티나 경제재정부 대외교역청은 2014년 7월 2일에 행정령 308/14를 통해 한국과 중국 제품에 대한 덤핑마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한국과 중국에 각각 52% 및 54%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함
- 그러나, 아르헨티나 계획관리부는 정부의 에너지 부분 투자확대에 따른 전력설비 기자재 수요 증가로 변압기에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여 2015년 7월 17일까지 최종판정 결과 적용을 유보시킴
- 2015년 7월 16일, 아르헨티나 에너지청 및 연방기획 공공투자부는 초고압(EHV) 변압기(단락 용량이 1만kVA 초과 60만kVA 이하의 것)에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 적용을 2년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여 2017년 7월 17일까지 재차 적용 유보됨
- 초고압(EHV)변압기를 제조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는 FARADAY SAICyF社로 아르헨티나 변압기 수요 충족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2016년 말부터 TADEO CZERWENY SA社가 초고압 변압기를 제조하기 시작하여 더 이상의 적용 유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수입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현지 산업보호를 위한 비관세장벽 확대

◦ 현지생산이 있는 민감한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허가제(LNA) 시행

- * 수입허가제(LNA, Licencia NO Automatica)
- 2015년 12월 22일 아르헨티나의 수입규제 정책인 사전수입신고제(DJAI)를 전격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수입 관리 제도인 수입통합모니터링시스템(SIMI)을 전격 시행함
- * DJAI 승인기준이 모호하고 일관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세계 유일무이의 수입규제 정책으로 유명하며 일본, 미국 및 EU의 WTO 제소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폐지하도록 강요받았고, 12월 22일 신정부에 의해 폐지됨
- * 사전수입신고제도(DJA, Declaraciones Juradas Anticipadas de Importación)
- * 수입통합모니터링시스템(SIMI, Sistema Integral de Monitoreo de Importaciones)
- SIMI는 수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며, DJAI와 같이 아르헨티나 연



방세입청(AFIP)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DJAI와 달리 신청절차가 매우 단순한 것이 특징임

- 기존 무차별적인 수입규제 대신, 현지생산이 있는 민감한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허가제(LNA)를 시행하며, SIMI 시스템을 통해 관리
 - 약 1,600개 HS코드가 LNA 대상이며, 까다로운 허가절차를 거치고, 수입 수량 및 금액에 제한을 두어 규제함
 - * LNA 주요 품목은 섬유(원사, 원단, 의류), 가전제품, 장난감, 제화, 제지, 농기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일부), 오토바이, 자전거, 가죽제품, 카펫, 철강(철사, 튜브, 파이프, 못), 유리제품, 모터, 가구 등에 집중
 - LNA 품목인 아닌 경우는 SIMI 신청 후 약 48~72시간 안에 보통 승인이 나며, LNA 규제 품목인 경우 수입승인은 최대 60일까지 소요(근무일 기준)
 - SIMI 시스템을 통해 승인을 받은 제품은 180일간의 통관기간이 주어짐
 - 통관시 사전에 신고된 내용과 실 수입제품을 검사하여 불일치가 발견될 경우 수입이 불가됨 (FOB 단가 5% 이상 및 이하, 수량 4% 이상 차이)
- (문제점) HS코드의 포괄성 때문에 현지에 생산이 없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수입허가제에 걸려 승인이 지연되고, 사전준비 시간이 오래 걸려 추가비용 상승 압박
 - 또한 일부 품목은 현지 소수업체에 의해 생산되어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수입허가제로 수입제품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투자진출 현황

□ 투자진출 현황

- 우리나라의 대 아르헨티나 투자 미미
 - 아르헨티나 투자진출 신고건수 2013년 12월까지 141건, 금액은 1억 8천만 달러 수준
 - 전체 해외투자금액의 0.07%로 미미한 수준
- 경기회복으로 한국기업의 진출도 확대
 - 2011년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투자가 증가했음. 하지만 2012년부터 시행된 아르헨티나의 각종 수입규제 및 외환규제로 인해 투자 부진
 - 2015년 말 취임한 마크리 대통령의 시장 친화적 정책은 각종 수입 및 외환규제로 인해 경직되어 있던 아르헨티나의 투자 시장을 활발하게 할 계획임



<대 아르헨티나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U\$)

법인가분	항목	합계	2012	2013	2014	2016
현지법인	신고건수	143	3	1	1	1
	신규법인수	53	0	0	0	0
	신고금액	455,295	544	900	276	177
	송금횟수	371	5	1	1	1
	투자금액	182,557	2,840	900	276	177
지점	신고건수	8	3	2	0	1
	신규법인수	3	1	1	0	0
	신고금액	2,605	1,600	500	0	5
	송금횟수	13	6	5	0	1
	투자금액	1,375	1,154	216	0	5
지사	신고건수	0	0	0	1	0
	신규법인수	0	0	0	0	0
	신고금액	0	0	0	22	0
	송금횟수	0	0	0	0	0
	투자금액	0	0	0	0	0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한국기업의 대 아르헨티나 업종별/법인별 투자현황>

(단위 : 건, 개, U\$)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56	21	54,955	88	29,434
광업	37	11	223,277	214	74,053
제조업	41	18	95,751	46	14,537
건설업	2	1	3,900	16	1,805
도매 및 소매업	12	5	78,607	15	64,371
부동산업 및 임대업	2	1	1,010	1	25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11	3	2,332	8	1,386
합계	161	60	459,831	388	185,841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 진출 한국업체 현황

- 제조법인은 없으며 판매법인 위주
 - 과거 경기 변동 폭이 지나치게 커 우리기업이 투자진출 부진
 - 2011년 진출했던 한화무역 2012년 11월 22일부 철수
- 전자, 수산업 위주 투자



- 가전회사 2사, 어업 1개사, 서비스업 1개사, 상사 1개사, 의료기기 2개사, 광업 1개사 진출
- 강력한 수입 규제로 전자제품 및 부품, 자동차 산업 지속적으로 부진
- 아르헨티나 직접 진출보다는 규제가 적고 같은 남미공동시장(MERCOSUR)회원국인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을 통한 우회적인 진출전략 필요

기업진출 현황

구분	진출업체	진출년도	비고
전자	삼성전자	1996	전자제품
	LG전자	1986	전자제품
상사	대우 INT'L	1977	무역, 자원, M&A
의료	세라젬	2007	온열치료기
	누가의료기	2008	온열치료기
서비스업	한국선급	2007	등록선박검사, 해운관련 정부 업무 연락, 신규등록 유치
어업	한성기업	1985	원양산업
광업	포스코	2015	리튬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IV. 체류 안내자료

1. 주요 연락처

◦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 주소 : Olga Cossettini 831, Piso 2 (1107), Puerto Madero, C.A.B.A, Argentina
- 전화 : (54-11) 4312-0033
- 팩스 : (54-11) 4312-7755
- 대표 E-mail : kotra@kotra.org.ar
- 김상순 관장 ('16년 2월 부임)

◦ 주 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

- 주소 : Av. del Libertador 2395 (C.P.1425), Capital, Buenos Aires
- 전화 : (54-11) 4802-9665, 8062, 8865, 0923 / 4806-6796(영사과)
- 팩스 : (54-11) 4803-6993
- 추종연 대사 ('14년 11월 부임)

◦ 주요 항공사 연락처

항공사	주소	전화번호	
		사무실	공항
Aerolineas Argentinas	Bouchard 547 Piso 8	4130-3000	4480-5000
Air Canada	Av. Cordoba 656	4327-3640/44	4480-9175
Air France	San Martin 344 Piso 23	4317-4700	4480-0524
American Airlines	Av. Santa Fe 881	4318-1111	4480-8202
Copa Airlines	Emma de la Barra 353 Piso 7	4132-3535	5480-4630
Lan Chile	Cerrito 866	4378-2222	4480-0021
Lufthansa	M.T. de Alvear 590 Piso 6	4319-0600	4480-0047
Malaysia Airlines	Suipacha 1111 Piso 14	4313-4698/4981	
Mexicana	Av. Cordoba 1131	4136-4101/05/36	5480-0256
TAM	Cerrito 1026	4819-4800	
United Airlines	Av. E. Madero 900 Piso 9	4316-0777	4480-9175
Varig	Av. Cordoba 972 Piso 4	4329-9211	

2. 체류 유의사항

◦ 기후 및 의복

- 아르헨티나는 한국과 정반대에 위치, 계절이 정반대로 의복도 한국과 반대로 준비 필요 (12~1월 여름, 7~9월 겨울)



- 부에노스아이레스 수도권 지역은 사계절이 있으나 겨울철에도 영하로 내려가지 않음

◦ 치안상태

- '01년 말부터 경제 파탄에 따른 빈부격차 확대와 실업증가로 은행 및 슈퍼마켓 강도, 몸값을 받기 위한 납치, 살해 등 강력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외출 시 신변안전에 주의가 필요
- 특히 택시강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단체로 이동

◦ 강도 사례 및 사고 예방 방법

- 고가 핸드폰이나 카메라 등의 전자제품, 고가 시계 등을 소지품을 갖고 이동하는 행인 대상으로 강도들이 2~3명이 완력으로 물건을 뺏어 도주함.
- 또 다른 방법으로는 혼자 있는 관광객 대상으로 2인조 이상의 강도 중 한 사람이 악취가 나는 이물질(옷이나 가방이 몰래 뿌리고 이를 우연히 발견하여 도움을 주는 것처럼 속여 특정 가방을 벗을 것을 권유한 후 가방을 탈취하거나 특정 장소로 유인하여 강탈.
- 따라서, 도보로 이동시에는 항상 고가 소지품은 호텔에 두고 현금도 필요한 만큼만 소지하여 다니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혼자 이동 중인 사람의 경우 표적이 되기 쉬우므로 항상 단체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함.
- 차량보유자의 경우, 눈에 보이는 위치에 핸드백이나 고가품을 올려놓고 운전할 경우 오토바이 강도가 창문을 파손하여 소지품을 갈취하는 경우발생.
- 또한, 관리자 없이 주차된 차량의 경우도 네비게이션이나 귀중품이 눈에 보일 경우 창문을 파손하고 물품을 갈취하는 사례도 흔히 발생함.
- 따라서 주행 차량의 경우 소지품을 의자 밑에 두고, 주차 시에 귀중품은 트렁크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교 통

- 택시는 기본요금 20.20페소, 200미터 당 2.02페소씩 추가
심야(22시~6시) 24페소, 200미터 당 2.4페소씩 추가
- 빈 택시는 앞 유리창 쪽에 Libre라는 빨간색 바탕화면에 하얀색 불이 들어옴
- 택시를 탈 땐 항상 택시 번호와 좌석에 붙어있는 택시기사 정보와 택시기사 얼굴을 확인. 목적지의 경로(길avenida 이름; 대체로 큰 길을 말함)를 알고 있을 시에는 바가지요금을 피할 수 있음.
- www.viajoentaxi.com.ar 에서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 후 대략의 요금을 알 수 있음
- 지하철(Subte)은 6호선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방사선형으로 도심에서만 환승가능하



며 심야에는 치안이 다소 불안함

- A~E선, H선, P선이 있으며 계속 확장 중
- 요금정보 및 운행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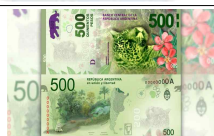
1회권 5페소	학생권(한 달, 48회) 50페소
2회권 10페소	교사권(한 달, 44회) 100페소
20회권 85페소	이 외에도 다양한 요금이 있음
30회권 126페소	

노선	출발지	운행 시간	평일		토요일		일요일/공휴일	
			첫차	막차	첫차	막차	첫차	막차
A	Carabobo	23분	05:00	22:28	05:00	22:27	08:00	22:03
	Plaza de Mayo		05:00	22:54	05:00	22:56	08:00	22:32
B	J.M. Rosas	27분	05:00	22:25	05:00	22:25	08:00	22:01
	Alem		05:00	22:49	05:00	22:49	08:00	22:25
C	Constitución	13분	05:00	22:45	05:00	22:45	08:00	22:21
	Retiro		05:00	22:47	05:00	22:47	08:00	22:23
D	Congreso de Tucumán	26분	05:00	22:24	05:00	22:24	08:00	22:00
	Catedral		05:00	22:51	05:00	22:51	08:00	22:28
E	Plaza de los Virreyes	24분	05:00	22:27	05:00	22:27	08:00	22:03
	Bolívar		05:00	22:59	05:00	22:59	08:00	22:35
H	Corrientes	13분	05:00	23:00	05:00	23:00	07:58	22:32
	Hospitales		05:00	23:00	05:00	23:00	08:00	21:00
P	Intendente Saguier	22분	05:30	21:01	05:30	21:00	08:29	21:00
	Centro Cívico		05:59	21:29	05:59	21:29	08:29	21:29
P	Intendente Saguier	24분	05:38	20:56	05:38	20:56	08:09	20:50
	General Savio		06:05	21:23	06:05	21:23	08:36	21:17

- 버스(Colectivo)의 경우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에 약 200개의 노선이 존재하며 2014년 1월 1일 이후로 카드(한국처럼 교통카드 시스템이 있음)계산 시 3.5페소, 현금으로 지불 시 6페소
- 아르헨티나가 한국의 버스 시스템을 도입해 우리나라와 시스템이 매우 흡사함.
www.xcolectivo.com.ar에서 시내/시외버스 노선을 알 수 있고 시외버스 경우 표 구매도 가능
- FP미스(Remis)는 일반승용차이나 콜택시 형태로 운행되는 합법영업 교통수단. 총 합산 거리로 요금을 받아, 차가 막히는 출·퇴근 시간에 용이



○ 화폐

화폐 단위 및 사진			
단위	사진	단위	사진
5센타보		2페소	
10센타보		5페소	
25센타보		10페소	
50센타보		20페소	
1페소		50페소	
100페소(신권)		100페소	
200페소		500페소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이나 T/C 등을 소지하여 출국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1만 달러 이상을 휴대하고 입국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함.

최근 아르헨티나 경제 악화로 대량의 신권 발행(에바 페론의 초상화).

화폐가치 하락에 따라 1페소를 제외한 동전은 잘 쓰이지 않는 추세임.

2, 5, 10, 20페소 지폐들은 낡은 지폐가 많음.

◦ 결제수단 및 환전

- 환율 : U\$1= 15.60 페소('16.03월 10일 기준)

- 페소 이 외에 달러화도 일부 통용되고 있으나, 호텔이나 쇼핑센터 이외에 달러가 통용되지 않으므로 은행이나 환전소에서 환전 후 사용

· 쇼핑 상가 내 물품 구입 시 달러화 지불이 유리한 경우도 있음



- 결제수단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 가능하나, 한국식당 및 한국 선물가게 등은 신용카드 사용불가

◦ 전화 사용방법

- 국내 및 국제통화는 원활한 편이나 호텔 내 국제전화요금은 높은 수준임 (10분 통화에 서울 통화기준 100페소 이상 소요)
- 현지 국제전화 카드 사용 시 요금 대폭 절감
 - 서울까지 10분 통화에 18.89페소 수준
- 호텔 객실 내 국제전화 카드 사용 시 연결료로 통화 당 U\$ 3 ~ 4을 청구하는 호텔이 많음

< 전화 사용 방법 >

국제전화	부에노스아이레스 → 한국	일반전화	00-82-지역번호-전화번호
		휴대폰	00-82-11-전화번호
		수신자부담	0800 8888 411
	한국 → 부에노스아이레스	일반전화	001(또는 002)-54-11-전화번호
국내전화	시내통화 (부에노스아이레스)	휴대폰	001(또는 002)-54-911-전화번호
		일반전화	전화번호
	시외통화	휴대폰	15-전화번호
		일반전화	지역번호 + 전화번호
		휴대폰	지역번호 + 15 + 전화번호

* 주요도시 지역번호

Buenos Aires 011, Bariloche 02944, Calafate 02902, La Plata 0221, Mar del Plata 0223, Cordoba 03547, Mendoza 0261, Neuquen 0229, San Juan 0264, Rosario(Santa Fe) 03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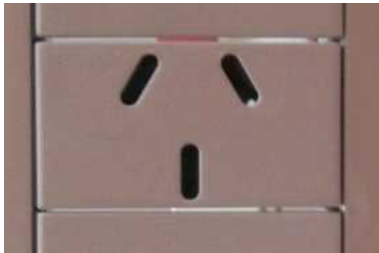
- 아르헨티나 시내 및 주택가에 전화방 및 PC방(Locutorio)이 많이 생겨 전화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음. 통화료는 공중전화와 같으며 국제 전화의 경우 시간에 따라 특별 할인 요금이 적용됨
- 휴대폰의 경우 로밍 서비스를 통해 현지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현지에서 저렴한 휴대폰 혹은 유심 칩을 새로 구매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보편적임.
- 대표적인 무선통신 회사로는 모비스타(Movistar), 페르소날(Personal), 클라로(Claro), 넥스텔(Nextel) 등, 4개사가 있으며, 유심 칩(약 15페소)만 구매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에 장착하여 사용이 가능함. 휴대폰 임대는 복잡하고, 과정이 복잡하여 사실상 사용이 불가함.

◦ 식수

- 가급적 미네랄워터를 호텔 또는 슈퍼에서 구입하여 음용
- 식수는 가스가 없는 sin gas와 가스가 있는 con gas가 있음

◦ 전압, 주파수, 비디오방식

- 220V, 50Hz, (콘센트는 3 Knife형)



- 비디오 방식은 PAL-N방식(한국은 NTSC방식)

◦ 팁 문화

- 호텔 : 침대 베개위에 1 달러(또는 10페소) 정도 놓고 나오며, 포터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1달러(또는 10페소) 주면 되나, 가방수가 많을 경우 1달러 정도를 더 지불
- 현지 식당 : 음식 값의 다과에 따라 7 ~ 10%를 팁으로 지불, 대부분 식당에서 신용카드를 팁 지불이 불가하오니 현찰 준비 필요.

◦ 아르헨티나 교민사회

- 한국교민은 이민역사 50년에 약 2만5천명 내외
 - '98년 3만5천명에 달했으나 경제위기 심화로 대폭 감소했다가 경제가 회복 되면서 소폭 증가 추세
- 교민의 80%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80%에 달하는 교민이 의류 생산·판매업에 종사하여 현지 의류시장 장악
 - 주요상권 : 온세(Once), 아베자네다(Avellaneda) 지역
- 한인 타운 (일명 : 백구촌)
 - 까라보보(Carabobo)와 까스파냐레스(Castañares) 거리 중심으로 한인 타운 형성(교회, 슈퍼, 식당 등 운영)
 - 호텔에서 택시로 40분 소요
- 한인회 및 50여개의 단체
 - 교회 : 40여개
 - 신문 : 한국일보, The Korea Times 현지판 발행
 - 학교 : 한국학교 초등학교 과정 운영



3. 주요 식당

- 한식당을 제외하고 현지 식당은 대부분 20시 이후에 영업을 시작함. 따라서 20시 이전에 현지식당에 갈 경우에는 전화로 영업여부를 확인하고 가야 함

◦ 한국식당

- 약 100여개 되는 한국식당이 있음
- 시내에 소재한 비원을 제외하고는 시내에서 택시로 40분정도 소요(편도 택시요금 약 100 페소)되는 한인 타운(일명 '백구촌'과 '아베' 2곳)에 위치
- 가장 보편적인 메뉴는 한정식이며, 가격은 대략 15 ~ 20불

식당명	주 소	전 화	비 고
비 원	Junin 548	4372-1146	한정식
한국관	Saraza 2135	4632-8139	한정식
해운대	Thorne 1471	4924-9485	소갈비·불갈비 전문
경미정	Pumacahua 730	4631-1648	숯불구이 전문
대원정	Balbastro 2055	4633-4480	해물탕, 아구찜 등
석 정	Felipe Vallese 3209	4612-1385	숯불구이, 부대찌개 등
늘 봄	Bacacay 3236	4612-4911	탕, 전골, 생선구이 등
미 도	San Nicolas 513	4672-0005	한국식 일식집
월명장	Pumacahua 1679	4633-4142	한국식 중국집
대성각	Carabobo 1334	4633-3829	한국식 중국집
구이가	Moron 3155	4637-1200	삼겹살, 전골
향가	Carabobo 1549	4631-8852	보쌈, 삼계탕 등
미담	Carabobo 1559	4633-0589	한정식

◦ 현지식당

- 아르헨티나의 주요음식은 아사도(asado)와 빠리야다(parillada)로 주요식당은 주로 푸에르토 마데로(Puerto Madero)와 국내공항 근처인 꼬스파네라 지역에 있음 (시내에서 10~15분 거리)

식당명	주 소	전 화	비 고
Las Lilas	Alicia Moreau de Justo 516	4313-1336	아사도 전문
Happening	Alicia Moreau de Justo 310	4319-8715	“
Rodizio	Av. R. Obligado s/n y La Pampa	4778-5405	“
Spettus	Alicia Moreau de Justo 876	4334-4126	“
Gardiner	Costanera Norte y La Pampa	4788-0437	“
Piegari	Posadas 1042	4326-9430	이태리식
Irifune	Paraguay 412	4312-8787	일식



4. 관광 명소

□ 탱고쇼



- 탱고 쇼는 대부분 2부로 나뉘어져 있음.
1부(20:00 ~ 22:00)는 저녁식사이고,
2부(22:00 ~ 24:00)는 탱고 쇼임
- 입장료는 탱고쇼 관람 시 50불, 저녁 포함 시 80불 내외

탱고장	주 소	전 화	비 고
Carlos Gardel	Carlos Gardel 3200 (중심가)	4867-6363	- 1시간 30분 공연
La Ventana	Balcarce 431 (시내 중심가)	4331-8689	- 규모가 다소 작음 - 1시간 탱고쇼, 1시간 민속쇼
Señor Tango	H. Vieytes 1655 (Boca 지역)	4303-0231	- 규모가 비교적 큼 - 2시간 탱고쇼 공연
Tango Porteño	Cerrito 570 (시내 중심가)	4124-9400	- 극장식 탱고쇼 - 1시간 30분 공연
Cafe del angelito	Av. Rivadavia 2100 (시내 중심가)	4952-2320	- 극장식 탱고쇼 - 1시간 디너, 1시 30분 공연

□ 대통령궁(Casa de Gobierno)



- 스페인 로코코풍의 건물로 1873년부터 1894년까지 건설
- 역대 대통령의 공식행사 및 집무실로 사용되고 있고, 사르미엔토 대통령부터 분홍색을 칠해 왔기 때문에 'Casa Rosada' (분홍색 집)으로 불림.
- 영국 침략군으로부터 영토를 지키기 위한 요새로 사용
- 페론 대통령과 에바 페론 영부인이 전국에서 10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연설을 했던 역사의 현장임

- 대통령궁 앞에는 5월 혁명(독립운동)의 발상지인 5월 광장(Plaza de Mayo)이 있음

□ 국회 의사당(Congreso Nacional)



- 민주주의와 입법권을 상징하는 그레코로만 양식의 위엄 있는 건물
 - 이탈리아인 빅토르 메아노(Victor Meano)에 의해 디자인되어 1897년에 건축을 시작, 1906에 완공됨

- 5월 대로를 통하여 대통령궁(Casa Rosada)과 연결
 - 광장에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복제품, 기념비와 분수대가 있어 일반시민의 휴식처가 되고 있으며, 5월 광장과 더불어 정치 집회가 많은 곳임

□ 7월 9일 대로(Avenida 9 de Julio)

<7월 9일 대로의 낮(좌), 저녁의 대로와 오벨리스크(우) >



- 도심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대로
 - 세계에서 도로 폭(140m)이 제일 넓은 것으로 알려짐
- 이 도로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시건립 4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936년에 세워진 오벨리스크 탑이 있음

□ 콜론 극장(Teatro de Colon)

<콜론 극장의 외부(좌), 내부(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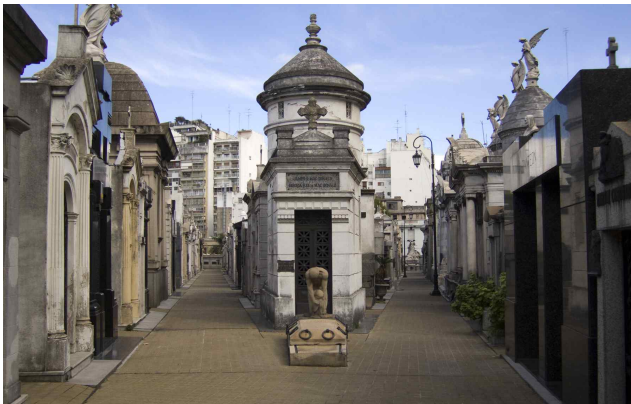
- 남미 최고 예술의 전당으로 1908년 건설
 - 밀라노의 스칼라극장, 파리의 오페라극장과 함께 세계 3대 극장으로 꼽힘
- 입장 정원은 2,700명(입석까지 최대 4,000명)이며 세계적으로 유망한 음악·발레 등이 공연됨

□ 국립미술관(Museo Nacional de Bellas Artes)



- 중·근세 유럽 유명작가와 아르헨티나 일류작가의 작품이 전시
 - 엘 그레코, 모네, 고갱, 고호 등
- 면적 9,750㎡의 2층 박물관으로 1만여 점의 작품 소장

□ 레콜레타 묘지(Cementerio de la Recoleta)



- 1882년 사방 150m 규모로 개설된 유서가 깊은 묘지
 - 예술적 우수성으로 70여개의 묘는 국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음
- 역대 대통령 13명의 묘를 비롯한 유명인의 묘가 다수
 - 페론 전 대통령 영부인(일명 : 에비타) 묘지는 외국인의 관광 명소임



- * 에비타로 불린 마리아 에바 두아르테 데 페론 영부인은 사생아로 태어나 불행한 소녀시절을 보냈지만 여배우가 되고 대통령의 영부인이 되었음. 미모와 영화 같은 인생으로 인기가 높았지만 33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

□ 보카 (La Boca)



- 탱고(Tango)의 발생지로 알려지고 있음
 -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의 남동쪽에 있는 항구지역
- 유럽에서 아르헨티나에 최초로 이민 온 사람들의 안식처였음

□ 산 마르틴 광장(Plaza San Martin)



- 아르헨티나에서 독립운동을 일으켜 페루, 칠레의 독립을 실현시킨 '자유의 아버지'로 숭배되는 San Martin 장군의 기념비(동상)가 있는 광장임.
- 주요행사시 이 기념비에 헌화를 함

□ 플로리다 거리(Calle Florida)



- 산 마르틴 광장에서 5월대로와 만나는 곳까지의 약 1 km의 상가거리
 - 부티크, 레스토랑, 갤러리, 서점 등이 밀집되어 있음
-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으며 항상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붐비고 있음



참고자료 1 : 아르헨티나 바이어 상담 유의사항

□ 비즈니스 에티켓

◦ 약속

- 아르헨티나 기업인은 6개월 정도의 출장일정을 미리 계획하기 때문에 사전에 면담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
- 약속을 잡기 위해서는 최소한 2주전에 레터로 방문신청을 하고 방문 며칠 전에 약속을 재확인해야 한다.
- 아르헨티나인은 다른 중남미 사람들에 비해 약속시간을 잘 지키는 편이다.

◦ 식사

- 아르헨티나인을 식사에 초대할 경우 금기시되는 음식은 없으나 매운 음식, 생선류 (회 포함), 국물 있는 음식 등은 선호하지 않는다. 아르헨티나인의 주식은 쇠고기로 생선은 부활절 등에 제한적으로 먹는다.
- 스테이크, 이탈리아·스페인·프랑스 음식이면 무난하고 식사 시 포도주는 한국의 김치와 같은 역할을 함으로 주문하는 것이 좋다. 최근 일본 ‘스시’가 중상류층을 중심으로 인기가 높다.
- 한국에서 아르헨티나 인을 초대할 때는 의자가 있는 식당이 좋다. 아르헨티나인은 양반다리를 해야 하는 식당은 매우 불편해하며 무릎을 꿇고 식사하는 경우가 많다.

◦ 선물

- 아르헨티나인은 비즈니스 상담에서 초면에 선물을 교환하지 않는다. 선물을 할 경우는 한국적 이미지가 있는 열쇠 고리 등 가벼운 선물이 좋다.
- 바이어 관리를 위해서는 크리스마스, 생일 등에 카드를 보내는 것이 추천되고, 연말에는 주요 거래 선에는 와인, 종합 선물세트 등을 선물한다.
- 7월 20일은 ‘친구의 날’이다. 이때 아르헨티나 기업인에게 센스 있게 이메일로 안부를 묻자.

◦ 인사

- 아르헨티나 현지인은 남녀를 불문하고 친한 사이인 경우 가볍게 포옹하고 오른쪽 볼을 맞대는 ‘운 베시또 (un besito)’ 인사법이 일반적이다.
- 초면인 경우 악수를 교환하여도 무난하다. 친해지면 ‘운 베시또’도 시도해 보자.

◦ 명함과 호칭



- 비즈니스 면담의 경우 상대방을 세 가지 호칭으로 부를 수 있다. 물론 아주 친해지면 호칭을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부르는 경우도 많다. 호칭을 부를 때 성명을 보고 성(姓)과 이름(名)을 잘 구분해야 한다.
- 아르헨티나인의 성명은 보통 2개 내지 3개로 되어 있는데 스페인과 달리 모성(母姓)은 쓰지 않고 있다.
- 이름이 두 개일 때 첫 번째가 이름, 두 번째가 성이 된다.(예 : Pablo Redondo 경우 Pablo는 이름, Redondo는 성).
- 이름이 세 개인 경우 첫 번째가 이름이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성이다(예 : Antonio Lopez Crespo 경우 Antonio는 이름, Lopez Crespo는 성).

- ① 성(姓) 앞에 직위를 붙여 호칭할 수 있다. 직위는 회사에 따라 달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프레지덴테(Presidente)는 사장, 디렉토르 헤네랄(Director General)은 사장 또는 이사, 디렉토르(Director)는 이사 또는 부장, 헤렌떼(Gerente)는 과장 정도이다.
- ② 남성에게 세뇨르(Señor), 기혼여성에게 세뇨라(Señora), 미혼여성에게 세뇨리따(Señorita)를 성(姓) 앞에 붙인다.
- ③ 명함을 보면 성(姓) 앞에 학력을 기재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 이름 앞에 학력을 붙이면 훌륭한 존칭이 된다. 박사는 독토르(Dr. ; doctor), 석사는 리센시아도(Lic. ; licenciado), 공학석사는 인헤니에로(Ing. ; ingeniero)로 표기한다. (예 : 리센시아도 로페스 licenciado Lopez)

◦ 복장

- 아르헨티나 기업인은 여타 중남미에 비해 매너를 중시하므로 정장 착용이 바람직하다.
- 아르헨티나 기업인 중 상담 시 노트אי로 오는 경우도 있으나 양복에 넥타이를 착용하면 무난하다. 넥타이는 원색보다는 부드러운 중색이 추천된다.

□ 바이어 상담·거래 시 유의사항

◦ 첫 대면에 자연스런 이야기 주제

- 비즈니스 상담은 먼저 축구, 날씨 등을 화제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아르헨티나인은 축구에 대한 국민적 자부심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아르헨티나가 으뜸가는 축구 강호로서 한국에서도 아르헨티나 축구에 대한 명성이 자자하다고 은근히 치켜 세워주는 화법이 필요하다.
- 또한 부에노스아이레스(‘좋은 공기’ 라는 의미)라는 도시 이름처럼 아르헨티나는 공



기가 매우 상쾌해서 신의 축복을 받은 나라라고 띄워준 다음 본론에 들어가면 상담이 부드럽게 풀릴 수 있다. 이외 탱고, 마떼(mate), 아르헨티나 국기 등도 가벼운 화제로 사용할 수 있다.

◦ 출신국가로 바이어 판단하기

- 아르헨티나는 ‘유럽계 이민 국가’이다. 1차 세계대전 전후에 정치·경제·종교적인 이유로 이민한 이탈리아·스페인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독일, 프랑스, 영국, 러시아, 이스라엘, 아랍국가로부터 이민도 붐을 이루었다.
- 현재 인구 4,302만 명 중 90% 이상이 유럽계 이민 후손으로 ‘유럽인이라는 자존심’이 강하며 다른 중남미 국가로부터 거만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고 있다. 최근에는 볼리비아, 파라과이 등 인근 국으로 부터 저임 노동력 유입이 많고, 중국(7만명), 대만(2만명) 등 아시아계 이민도 증가 추세에 있다.
- 아르헨티나인은 출신국에 따라 업종이 전문화되어 있고 상관습도 다르다. 스페인, 이탈리아계는 산업 전반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외 국가 출신은 특정업종에 전문화되어 있다. 예컨대, 2만 명 내외의 한국인의 경우는 봉제업과 의류 도소매업에 교민의 80% 이상이 직간접적으로 종사하고 있다.
- 출신 국가별로 상담 스타일도 다른데 스페인·이탈리아계 바이어는 일반적으로 상담에서 ‘Si(yes)’는 계약 또는 주문을 의미하지 않는다. 무역관 경험으로 볼 때 꼼꼼한 바이어 일수록 계약가능성이 높았다. 중동 계 바이어는 ‘가격(비용)이 머리에 있다(costos en la cabeza)’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수출자 입장에서는 치밀한 상담준비가 필요한 반면, 비즈니스 진행 속도가 빠른 편이다. 독일·영국·북구 계 바이어는 사전조사가 치밀하고 분석적이다.

< 출신국가별 종사 업종 현황 >

- 스페인, 이탈리아 : 아르헨티나 제조, 유통 등 전 업종에 진출
- 유대인 : 식물 수입 및 유통, 라디오, TV 등 언론, 부동산
- 아랍 : 신발, 피혁산업
- 중국 : 200m² 이하 소매점(5,800개 이상)
- 볼리비아 : 봉제
- 일본 : 화훼, 세탁소
- 한국 : 봉제, 의류 도소매업

◦ 바이어 기질 : 유럽인이라는 자존심과 보수성

-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주로 이탈리아와 스페인 후손으로 남미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유럽인이라는 자존심이 매우 강하다.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남미의 파리’, 휴양도시 바릴로체를 ‘남미의 스위스’ 등으로 부르고 있다.
- 보수적 성향의 바이어들이 많아 신규 거래 개발이 어렵지만 한 번 거래를 시작하여 좋은 인상을 주면 다른 경쟁사가 뚫고 들어오기도 어려운 긍정적 측면도 있다.



아르헨티나는 전통적으로 유럽과 미국 공급선 위주로 거래를 오래 해오고 있어 한국, 일본 등 아시아계 진출이 상대적으로 늦은 국가이다. 최근 유로화 강세에 따라 아시아 등 신규 거래선 발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 수입관행

- 2001년 디폴트 및 평가절하로 경제 환경이 어려워져 소비자 구매력 감소 탓에 가격을 중시하는 바이어가 크게 늘었다. 또한 가격 면에서 중국산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
- 거래조건은 T/T & CAD가 일반적이다. 아르헨티나 기업인은 전통 관행상 외상거래를 고집해오다 디폴트 이후 대부분 현금, L/C 거래에 응해왔으나, 최근에는 T/T로 선금 20~30%, 나머지는 CAD(COD)로 결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거래관계가 오래 지속되면 D/A, D/P를 요구한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기술적 디폴트로 선언된 후 수출보험공사에서 매우 제한적인 신용장을 개설하고 있다. L/C 거래는 개설수수료가 최대 5%에 달해 기피한다.

◦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다. 현지 상관행상 꼭 'Contract Sheet'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Proforma Invoice로 대체할 수 있다. 이 Proforma Invoice에 바이어의 Counter Sign을 받아서 계약서에 갈음할 수 있다. 계약서에는 Claim 발생 시 해결 방법 등을 명기하는 것이 좋다.
- 제반 선적서류 작성에 대해 바이어가 계약시 간과 할 수도 있으니 서류 작성시 반드시 바이어에게 확인하고 작성하는 것이 좋다. 아르헨티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세관 등에서 그때그때 요구하는 별도의 서류 및 영사확인 서류 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언더밸류를 방지하기 위해 price list 등에 영사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 선적서류 미비로 인한 통관 지연 시 비용 발생이 크므로 보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현지 세관 규정상 선박 도착 후 5일 이내에 통관이 안 되면 창고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 간혹 바이어가 실제 수입 의도가 없으면서 업체에게 공급조건 등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특히 주의할 것은 현지법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을 서면 기재하면 절대 안 된다. 과거에 국내 모 자동차 배터리 업체의 대리인이 현지 바이어에게 "필요하면 언더밸류를 해 줄 수 있음" 이라고 기재한 것이 현지 매이커를 통해 언론에 공표되어 큰 문제가 된 적이 있다.
- 문제 발생 시 현지 바이어(특히 유대인 경우)는 자사에 유리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한국 업체는 자료가 없는 경우가 있다. 최악의 경우 소송을 하더라도 자료가 없으면 불리해진다. 특히 바이어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자료, 정보는 내용을 신중히 검토한 후에 제공. 바이어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며 요청한 자료를 추후 문제 발생 시 바이어에게 유리한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 역사적·문화적 금기사항, 불쾌감을 주는 언행

◦ 反 영국 감정을 고려하자.

- 아르헨티나는 영국에 대해서 1982년 포클랜드 전쟁의 앙금이 남아있어 국민적 감정이 아직까지 좋지 않은 상태이다.
- 영국을 긍정적 측면에서 묘사하는 것은 삼가하고 특히 포클랜드는 ‘말비나스(Malvinas)’라고 표현해야 한다. 아르헨티나 지도에는 포클랜드를 아르헨티나 영토로 표시하고 있다.

◦ 한국식 술 한 잔은 피하자.

- 아르헨티나에서 '술 한 잔(un trago) 하자'고 하면 동성연애자 취급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식으로 '술 한잔 하자'고 하면 분위기와 뉘앙스에 따라 상대가 남성인 경우 동성연애자, 여성인 경우 '작업을 건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저녁식사를 초대할 경우는 정중하게 저녁을 초대해도 되겠느냐고 문의해야 한다.

◦ 목소리를 높이지 말자.

- 바이어와 상담에서 서로 의견이 틀리다고 목소리를 높이거나, 화를 내거나, '돈'을 꺼내서 흔드는 행위는 절대해서는 안 된다.
- 일례로 한국의 출장업체가 바이어와 상담 시 고함을 지르고, 돈 다발을 흔들면서 결제조건을 협의한 적이 있는데, 이 바이어가 동 행위를 인격 모욕적인 행위라고 무역관에 항의 서한을 보낸 사례가 있다.

□ 재미있는 사회 엿보기

◦ 아르헨티나인의 자화상

- 유엔개발계획(UNDP)의 ‘위기 이후 아르헨티나, 기회의 시기’ 설문조사에서 아르헨티나인은 자화상으로 허풍쟁이, 부패, 남을 도와줌, 거만하다는 순으로 자신을 평가하였다.

**< 아르헨티나인의 자기평가 이미지 설문조사 결과 >**

- 부정적 : 허풍쟁이(9%), 부패(9%), 거만(8%), 게으르다(7%), 개인주의(5%)
- 긍정적 : 남을 도와줌(9%), 부지런함(4%), 도전정신(3%)
- 기 타 : 축구(5%), 마떼(4%), 국기(4%), 탱고(3%)

◦ 가족경영 중소기업

- 아르헨티나 기업은 전통적으로 가족경영 위주의 중소기업이다. 대기업의 경우 몇 회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국적 기업이다. 1990년대 초 메넴 정부가 실시한 공기업 민영화와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조치의 영향이다.
- 아르헨티나 기업에서는 부자(父子)가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다. 아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바로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우면서 거래선과 관계를 유지한다. 무역관에 서 바이어를 초대하면 셋에 하나는 부자가 함께 나온다. 따라서 기업경영은 전문경영보다는 가업(家業) 수준으로 대물림되고 전통적으로 해당업종에는 신규 업체가 진출하기 어려운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 대기업의 경우는 대부분 다국적 기업으로 모계 회사의 구매정책에 따라 좌우되며 ‘관료주의’가 있다.

◦ 사업하기 어려운 조세제도

- 아르헨티나에서 수입자는 많은 운영자금(working capital)이 필요하다. 우선 ‘수입대금 통관 이전 지불’ 규정이 있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의 고시에 의하여 HS 코드 8단위 기준 1,356개 품목은 현지통관 이전에 수입대금을 완불토록 하고 있다.
- 통관 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관세, 통계세(0.5%), 부가세(21%), 추가 부가세(10%), 소득세(3%)를 납부해야 한다. 전자제품과 같이 특소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그 부담이 더욱 심하다. 부가세(21%), 추가 부가세(10%)는 사후에 신용(credit)으로 정산이 가능하지만 ‘선 납세’ 개념으로 금융비용이 발생한다.

참고자료 2 : 아르헨티나 바이어 접촉 가이드

□ 거래 제의시 우선 이메일로 가볍게 접촉하자.

- 아르헨티나 바이어에게 거래 제의를 위해서는 세부적인 자료를 우송하기 이전에 우선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접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때 바이어가 신뢰할 수 있도록 바이어를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밝히고, 회사·제품·홈페이지 등의 내용에 대하여 소개하는 것이 효과적
- ※ 무역관에 대해 언급하고 싶다면 현지 활동명인 ‘KOTRA - Oficina Comerical de la Embajada de Corea (KOTRA - Commercial Section of Korean Embassy)’로 기재
- 바이어와 몇 차례의 교신 후 상호 인지도 및 거래관심도가 어느 정도 제고되었을 때에 회사소개서·카탈로그·가격표 등을 비롯하여 가능하면 샘플을 포함한 거래 관련 일체자료를 특사배달 등으로 송부한다.
- 아르헨티나 바이어들은 홈페이지·e-Book 등의 형태에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 카탈로그 등 인쇄물을 선호하여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 검토결과 문의는 1주일 뒤에 ...

- 구체적인 거래 관련 자료를 특사배달 등으로 송부한 경우 자료 수령일 예상일에서 대략 1주일이 지난 뒤에는 자료의 수령여부 확인과 아울러 검토결과를 문의하는 절차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 만약 자료송부 후 곧바로 문의하게 되면 거래제의 업체 쪽에서 너무 독촉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 거래 관련 자료의 검토결과를 문의할 때에 먼저 팩스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고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전화로 연락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회사 및 제품소개서 작성에 정성을 다하자

- 아르헨티나 현지에서는 일반적으로 고급종이로 인쇄된 자료를 파일에 첩한 형태(바인더)로 회사소개서를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대부분의 한국 업체들은 회사소개서를 팩스 한두 장으로 끝내려는 경향이 있는데 아르헨티나 바이어들에게 회사소개서를 보낼 경우 현재 거래하고 있는 국가별 바이어들을 소개하는 내용 등을 담아 좀 더 상세한 회사정보가 수록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권장된다.
- 아울러 제품소개서는 가급적 많은 양의 자세한 제품 관련 자료와 함께 제품 사진 등을 첨부하여 약간 두꺼운 파일 형태로 편철하여 제공하는 것이 좋다.
- 과거 한국의 한 업체가 제작한 7장짜리 제품소개서를 가지고 오퍼를 하였더니 바이어 측에서 독일 업체로부터 받은 자세한 내용의 제품소개서를 보여준 사례가 있



었다.

- 회사와 제품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만 전달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합리적일 수도 있을 것 같으나, 업체의 얼굴과도 같은 회사소개서와 제품소개서를 제대로 만들어 제공할 때에 바이어로부터 기본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회사소개서와 제품소개서의 철저한 준비 필요.

□ 전화통화시 유의할 사항

◦ 국제전화 고비용으로 기피

- 아르헨티나에 인터넷 폰 등이 보급되어 국제전화에 어려움이 없으나, 기존의 국제전화 고비용에 대한 인식으로 대부분의 바이어는 국제전화를 기피하고 있다.

◦ 담당자와 통화시 인내 필요

- 아르헨티나 바이어 담당자와 통화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오후에는 영업 때문에 자리에 없는 담당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독촉을 받는다고 느끼는 경우 비서에게 외출 중 또는 여행 중이라고 말하라고 지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 비서와 친분형성 필요

- 아르헨티나 업체에서는 현지 비서들의 입김이 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담당자와의 친분형성에 못지않게 바이어 사무실의 비서와도 친해질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재촉하는 인상을 주지 말 것

- 아르헨티나 바이어는 업무를 빨리 빨리 진행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하는 타입으로 바이어에게 전화로 재촉하는 인상을 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다.
- 이럴 경우에는 매일 전화를 함으로써 조급하다는 인상을 주는 것 보다는 시간을 두고 2일 혹은 3일의 간격으로 통화를 시도하는 것이 낫다.

◦ 바이어로부터 무 회신에도 지속적인 연락 필요

- 아르헨티나 인들과 거래할 때는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다. 곧바로 회신하고 답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연락을 취해야 한다.
- 바이어가 내일 연락하겠다고 해놓고는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은 언어상의 문제도 있지만 담당자들의 마인드가 만만디 스타일이거나 또는 실제적으로 여타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으므로 항상 현지 상황에 대한 정보에 신경을 쓰면서 연락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 사용언어 및 연락시간대

◦ 바이어 20%가 영어를 구사

- 무역관이 접촉한 경험으로는 수입상 중 20% 내외가 영어를 구사할 수 있어 거래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 따라서 거래제의 교신 시에나 회사 및 제품소개서 작성에 통화 시에는 가급적 스페인어로 자료를 작성하거나 통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바이어와 오전에 연락하자 (한국과 -12시간 시차)

- 대부분의 담당자는 오전에 잠깐 회의를 가진 후 12시까지는 사무실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데, 무역관의 경험으로도 오전시간에 담당자와의 연결 확률이 오후시간보다 높았다.

◦ 이메일을 많이 사용하자

- 시차, 언어, 환경문제로 전화, 팩스보다는 이메일이 바람직하다.
- 50% 이상의 아르헨티나 기업은 팩스를 전화와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팩스 전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세날 데 팩스, 뽀르 파보르(Señal de Fax, Por Favor)"라고 말하면 팩스 신호음이 들리면서 송신이 가능하다.
- 이메일은 영어로 작성하여도 문제가 없는 경우 많다.

V. 무역관 직원 연락처

성명/직위	휴대폰/대표전화/내선
김상순 관장	15-3579-6789 / 4312-0033 (101)
윤예찬 부관장	15-3579-6791 / 4312-0033 (102)
Gustavo Muller	15-6324-1062 / 4312-0033 (103)
강영광(Samuel) 과장	15-6457-1004 / 4312-0033 (104)
김준수(Diego) 대리	15-5609-6562 / 4312-0033 (105)
하은주(Ju) 대리	15-6693-4616 / 4312-0033 (107)
주소미(Ana) 대리	15-3476-9502 / 4312-0033 (106)
김슬비(Erika) 대리	15-6473-1542 / 4312-0033 (114)
이대로(samuel) 대리	15-3518-0925 / 4312-0033 (111)
부에노스 아이레스 무역관 Tel. 54-11-4312-0033	
Olga Cossettini 831, Piso 2, Oficina B, Puerto Madero, C.A.B.A, Argentina	



www.kotra.or.kr